



## 심장질환 치료의 안전성을 더하다

이주명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장질환 치료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다.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에 심혈관 중재시술 영상 및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서 국제 진료지침에 인용되는 중요한 연구를 꾸준히 발표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료 현장에서 명확한 진료 지침이 있는 결정은 약 3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경험과 감을 총동원해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지요. 저는 환자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것이 싫어서 보다 명확한 진료 지침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2023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한 연구는 2024년 유럽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이 연구에서 이주명 교수는 복잡한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 혈관 내부를 직접 촬영하는 영상 장비(IVUS 또는 OCT)를 활용해 정밀하게 시술하는 것이 기존의 혈관조영술보다 주요 심혈관 사건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는 정밀 영상 기술이 시술의 정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직접적으로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또 ‘유러피언 하트 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다혈관 병변을 가진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혈관의 기능적 폐쇄 정도를 파악하는 분획혈류예비력(FFR) 지표를 활용해 치료가 필요한 혈관을 선별하는 것이 기존 방식보다 불필요한 시술을 줄이면서도 치료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점을 입증했다.

### 연구는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힘

이주명 교수는 스스로를 ‘생계형 연구자’라고 말한다. 연구로 부와 명성을 얻겠다거나, 돈이 되는 연구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연구를 하지 않고 진료만 한다면 3년을 못 넘길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는 제게 의사라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의사는 다른 의사들과 소통할 일이 없어요. 서로 힘든 순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에게서 받는 에너지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NEJM에 발표한 연구의 바탕이 된 20여 개 기관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데이터를 참여기관과 모두 공유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처음부터 임상시험에 참여한 기관들과 협의해서 서로 상생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그는 항상 은사인 구본권 서울의대 교수(제14회 아산의학상 임상의학부문 수상)의 조언을 마음에 담고 있다. “혼자 갈 수 없으면 같이 가면 되고, 빨리 가지 못하면 천천히 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한 걸음이라도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같이 가야 한다.” 이주명 교수에게 연구는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단이다.

### 글 편집부



이주명 교수는 심장 혈관 스텐트 시술 시 혈관 내 영상장비 활용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심장질환 치료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